

# 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연찬회 개최

###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의 민주주의 실천 방안 모색

### 학교자치 역량 강화 연수 등 통해 민주시민역량 강화

올 한 해 전남 도내 각급 학교에서 존중과 자율, 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확산해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4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연찬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자신과 공동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제

도와 절차를 이해해 삶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기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7개의 민주시민학교를 운영해 교육과정과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교상을 구현하고, 지난 해에 이어 '남도민주평화길' 여수, 강진, 장성편을 제작해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민주시민정신의 가치를 찾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학생회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며,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 운영과 미디어 리더러

시 연수, 학교자치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연찬회에서는 '2021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안내와 함께 올해 전체 학교에 도입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활동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학교자치기구(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구성'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정착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전남의 학생들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발휘하는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으로, 참

여와 실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길러진다."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 목포교육청, '내안애' 학교 밖 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의 혜택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목포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밖 돌봄교실'은 맘(MoM)편한 돌봄교실(목포백련초), 내안애 돌봄교실(목포석현초) 총 2실로 초등돌봄교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갑수 교육장은 "내집앞 맘(MoM)편한 돌봄교실'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과후·돌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내집앞 돌봄교실에서는 아이돌봄 외에도 특성화 프로그램과 놀이중심 돌봄, 안전교육 등을 특

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돌봄교실과 차별성 있는 특색있는 학교 밖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를 학교 밖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는 김OO 학부모는 "학교의 돌봄이 포화상태라 막막하였는데, 내집앞에 위치한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은 지자체와의 교육협력력을 통하여, 향후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목포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목포교육 토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 보성공공도서관과 함께 지역 학생들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

### 언플러그드와 과학실험·주산·암산교실·창의미술교실 운영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공공도서관은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5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언플러그드와 과학실험 ▲주산·암산교실 ▲창의미술교실을 도서관에서 운영했다.

특히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주산·암산 교실은 당일 점수가 마감되고 참여 학생들도 종강 때까지 빠짐없이 출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 추후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아동센터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도에 도서관이 함께했다. 보성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창의융합과학실험 교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 원리를 소개하고 실험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했으며, 복지관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한 특목특도론교실을 통해 책과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토론에 대한 기초와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성지역아동센터장은 "이번 과학실험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더 높았던 것 같다. 도서관이 매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줘서 감



사하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겨울방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3월 중 홍보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덕순기자

## 강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비 중학생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달부터 예비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중에 중학교 진학하는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4학년부터 초등6학년까지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비 중학생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없어 4-5학년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수준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중학교과정 예비학습과 체험활동을 선정했다.

이번 과정은 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학습멘토동아리 '다정다감'에 소속된 강진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 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1년 사업참여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강진읍과 군동면에 거주하는 초등4학년부터 초등6학년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사항은 061-430-5977~8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